



늘푸른대학 출발!



지난 9월22일 오전 11시, 중예배실에서 늘푸른대학의 개교예배와 입학식이 있었다. 현재 입학등록인원은 총127명으로 남자39명, 여자88명의 제1기 입학생이 탄생되었다. 개교예배와 입학식, 점심식사 후 일곱개 분야의 특별활동이 반별로 진행되었다.

10월 25일 크로싱 축구부 창단 2주년



주님의교회 교우들로 조직된 『크로싱』축구부가 어느덧 창단 2주년을 맞는다.

축구를 통한 친목과 선교에 뜻있는 교우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축구팀은 아직 정식 사역부서는 아니지만 여느 선교회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는 매주 토요일 2시 30분부터 6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이나 인근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회원으로는 환갑을 넘기신 김창안 장로님,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용수 집사님(해설위원) 등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도 몇몇 있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가

울 것이라고 믿고 있다.

주요 선교활동으로 매분기별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군부대(52사단)를 방문하고, 길가에교회와도 축구를 통해서 끈끈한 동지애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6일 하나원을 방문하여 '남북' 대결을 할 때에는 탈북 미녀 응원단(아주머니, 여학생)의 열띤 응원으로 크로싱 회원들이 살짝 긴장(?)되기도 하였다.

크로싱 회원들은 오는 10월 25일 주일 오후 3시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창단 2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경기를 계획하고 있다. 교역자와 유소년 축구팀 코치로 한 팀을 구성하고, 교회 청년팀, 길가에교회팀, 크로싱팀과 친선 경기를 추진한다. 축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날 운동장에 오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활동 내용은 크로싱 홈페이지(cafe.daum.net/jesuscrossing)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의: 정 권 집사 010-9795-7427

지하주차장의 변신!



약 2개월 간의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 오늘 9월 27일 2부예배 후에 컷팅식을 갖는다. 소강당을 비롯하여 다목적모임실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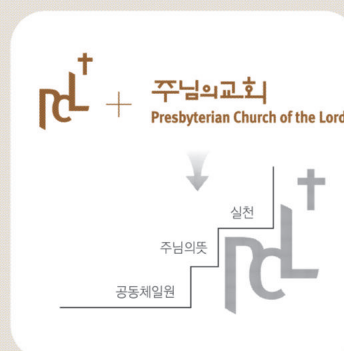
마련되었고,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던 4층 교역자실과 1층 사무실, 설만한 물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뜻하게 변신하였다.



알아들시다

주님의교회 CI 소개

주님의교회 CI에 무슨 뜻 뜻이 담겨있나요? 궁금해하는 교우들을 위해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주님의교회 CI는 교회의 성경적, 역사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라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표현하였다. 이를

전체로 한 전체적 이미지는 교회 공동체와 지체된 교우들이 주님을 향해 영적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모습이다. CI의 우선적인 특징은 영문 이름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의 이니셜 PCL을 기본으로 디자인한 점이다.

먼저, PCL의 CL(Church of the Lord)은 그 자체로 '주님의' 교회라는 성경적 정체성과 교회의 창립정신을 담고 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시고,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고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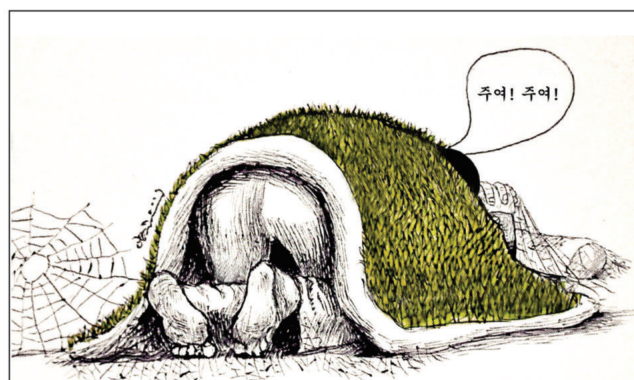
PCL중 PC(Presbyterian Church)는 '장로교회'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시대에 기존의 교회정치제도를 개혁하며 세워졌다. 그 근본 정신은 신앙과 삶의 표준인 '오직 성경' (Sola Scriptura)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Soli Deo Gloria),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살아야 함을 핵심으로 한다. 주님의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와 같은 정신을 담은 PCL에 십자가 형상을 우측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십자가로 표상되는 예수그리스도의 길과 하나님나라를 향한 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한편, 그 형상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기도를 우선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CI의 서체와 색상을 통해서 주님의교회에 부여된 사명과 비전의 고유성을 표현하였다.

'주님의교회' 서체는 심볼마크의 조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고, 색상은 주님의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함축하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색으로, PCL Warm Brown으로 명칭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46절

[오늘의 말씀]

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9~10

통 권 제 255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9월 27일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2009.10.10 토요일 (오전9시)은!

전교인 걷기대회의 날

전교인 걷기대회가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이 행사는 다문화가족돕기와 겨자씨모임의 활성화, 전교인의 건강증진과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걷기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참가신청과 건강체크 등으로 시작하여 개회 선언과 준비운동 후 걷기에 들어간다. 걷기를 마치면 11시 30분에 본당에 입장하여 공연, 다문화가정 영상소개, 성금전달 그리고 행운권추첨 순서를 갖고, 12시 30분에 행사가 끝나면 겨자씨별로 준비한 점심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이상이며, 참가신청은 교구별로 겨자씨 인도자를 통하여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오늘 9월 27일과 10월 4일 주일 본당 로비에서, 그리고 행사당일 운동장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걷기참가자 참고사항

- 가족들과 겨자씨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세요.
- 당일 학교 내 주차가 안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 간식 및 음료수는 드신 후, 쓰레기는 지급되는 썩에 담아두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주시시오.
- 걷기행사 중 건강 이상 시에는 의료반에 신고하여주세요.
신고전화 : 011-891-5476 박일영 집사
- 행사 후에는 겨자씨 별로 친교와 중식모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보관장소 : 교회 제3집회실
- 행운권 추첨용 상품협찬을 받습니다(PDP TV, 냉정고, 세탁기, 자전거, 정수기, 등산배낭, 그릇셋트, 선글라스, 롯데월드이용권, 자동차 광택권 등...). 연락처 : 010-5382-4769 김동익 안수집사
- 참가비 입금계좌 : 제일은행 주님의교회 204-10-016687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주님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전교인 걷기대회

2009.10.10 토 오전9시

주님의교회는 전교인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겨자씨 모임을 활성화 하며 다문화가족 돕기로 이웃과 함께 하는 제회 전 교인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걷기코스
교회~양재천 영동5교~교회(왕복 6km)

● 참가비
1인당 1만원 이상

● 행사진행 (09:00~09:30) 참가접수, 건강체크 (09:30~11:30) 개회선언, 준비운동, 걷기 (11:30~12:30) 공연, 다문화가정 영상소개, 성금 전달, 행운권 추첨

걷기코스 주요지점 미리보기



<주요기사>

2 함존직 선거 결과

3 결핵제로운동본부 감사편지

4 늘푸른대학 입학식

4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2009 주님의교회 항존직 선거 결과 발표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담전3:8-9

2009 교회 항존직 선거를 마쳤다. 2차 투표에 걸쳐 장로 1명, 권사 23명, 안수집사 24명의 일꾼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48명은 1년간의 피택자 교육을 받게 되며 내년 창립기념주일에 임직하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이들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교역자를 도와 공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장로 피택자 (총1명)



박재준 3교구

권사 피택자 (총23명)



유마노 3교구



민옥기 2교구



안경희 4교구



김인숙 2교구



윤숙연 1교구



장계영 6교구



김정순 5교구



정순모 2교구



윤현숙 3교구



윤명희 5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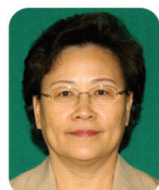
송경엽 6교구



이미영 3교구



이은숙 2교구



박희주 1교구



최명희 1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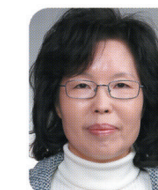
이동명 3교구



윤미숙 3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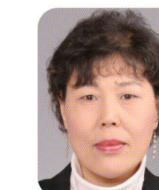
강은주 4교구



구정숙 1교구



김신애 4교구



윤여금 1교구



윤영숙 6교구



안종택 1교구

안수집사 피택자 (총24명)



변춘석 3교구



신광이 3교구



김광일 2교구



김학식 2교구



탁준한 4교구



김수철 5교구



박일영 5교구



김명훈 1교구



나관주 6교구



이문영 6교구



윤용석 2교구



김청옥 5교구



박기석 5교구



정준호 2교구



박석영 4교구



주용구 5교구



남성엽 3교구



이종태 4교구



노형래 6교구



박혁동 5교구



지성호 5교구



박인석 5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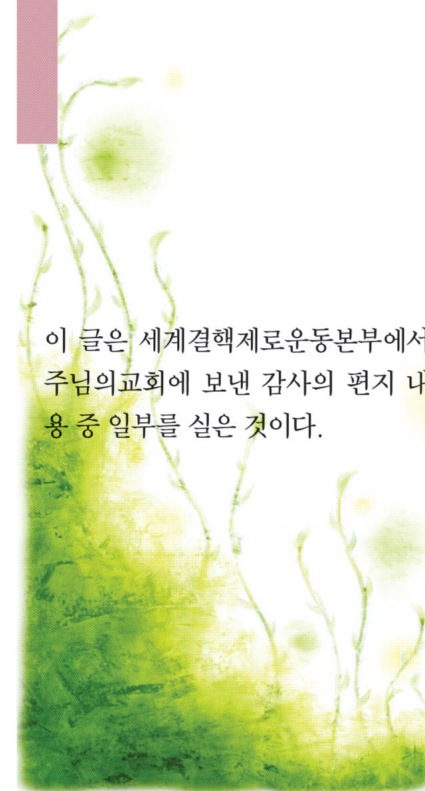


이승일 4교구



성규철 2교구

감사의인사



이 글은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에서 주님의교회에 보낸 감사의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실은 것이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결핵을 제로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조석으로 가을의 시작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약칭: Zero TB World)는 전 세계 결핵을 퇴치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13일 발기인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22일에 창립되었고, 2007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스위스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본부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국에도 국제기구 본부가 있어서 인류에 공헌, 봉사하기에 적합한 일은 결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위험국에서 지금은 모델국가이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결핵약은 세계에서 제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한국인이 앞장

서서 세계의 결핵퇴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결핵어린이돕기” 2차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중국(청도)을 비롯해 인도, 방글라데시, 스와질란드, 브룬디, 캄보디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로 수혜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덴버를 중심으로 애틀란타, 뉴욕, 로스앤젤레스 지부와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등에 지부를 결성하여 Zero TB America 본부를 설립하고 국제기구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계결핵퇴치에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제1대 총재 이운구 박사에 이어 제2대 총재 권이혁 박사의 취임으로 제2기 집행부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인류 최대의 재앙 중의 하나인 결핵을 제로화하는데 본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 9월 18일
사)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 권이혁
본부장 김상환
사무총장 박삼봉

새가족이여!

주님의교회 글씨를 쓰면서 믿음의 길로

그림을 전공하고 몇 해 전부터 손글씨를 써왔던 나는 디자인과 담당 교수님의 부탁으로 '주님의교회'라는 로고 글자의 초안을 쓰게 되었다. '교인이 아닌 내가 쓰는 글자로 어떤 참 의미가 전해 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었는데...' 모든 글씨는 그 뜻과 의미를 가슴으로 담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혼란이 가득했다. 이런 마음을 교수님께 전하니 주님의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은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사실 '담임목사'란 의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박원호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주님의교회의 역사와 여러 면들을 둘러보았다. 사무실 책꽂이 한쪽에 있던 성경을 펼쳐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교회를 찾아가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한 채, 교회 정경만 바라보다 돌아왔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돌아온 후 주님의교회 글자를 붓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마음의 작은 변화일까? 전체 글자의 처음 글자인 '주'를 쓰는데 '주 하나님', 웬지 높고 거룩함이 느껴져 '주'자가 점점 커지며 드넓게 쓰여졌고, '님'을 쓸 때에는 높으신 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담은 듯 마음이 온화해졌다. 사이에 '의'를 쓸 때엔 더욱 차분해짐을 느꼈고 '교회'를 쓸 때는 '교'자와 '회'자가 서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만드신 넓은 장소를 상징하듯 다가왔다. 순간 가슴이 떨려왔다.

로고 자료를 넘긴 후 얼마나 지났을까? 주일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갔다. 무의식적으로 내 발걸음은 사람들을 따라 예배실로 가고 있었다. 맨 뒷줄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어찌나 낯설었던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고 나만이 이방인인 듯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예배 후 마당으로 걸어 나와 등나무 밑에 앉아 그림자만 바라보았다. 마당에 준비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고, 숨은 턱까지 차고 올라왔다.



아직은 믿음이 텅 빈 자루처럼
헐렁하고 비틀거릴 수도 있겠지만
한 알 한 알 말씀을 담다보면
튼실하게 설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늘 기도하기로 다짐한다.

교회에 나온 지 4주째 되는 날 새신자 등록을 하였다. 천천히 조금씩 찾아온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이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다. 지병으로 고생하는 동생이 간절히 소망하던 일, “언니 교회 나가서 기도 좀 해줘, 나 낮게 해달라고, 아이랑 남편이 불쌍해 죽겠어.” 그러던 동생의 말에 나는 “왜 꼭 교회에 나가야 해? 절에 다녀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 되지 않겠니?”라며, 유난스럽게 교회에 나가도록 종용하는 동생에게 심하게 반박했던 지난날이 생각났다. 절에 다니는 어머니께서는 경전이나 글을 쓰던 것들을 가리키며 “나 죽고 나면 모든 물건들을 네가 간직해라” 하시곤 하였고 나는 언제나 그러겠노라고 대답했었다.

그랬던 내가 동생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말했다. “나 교회 나간다! 주님의교회라고 해.” 나의

그 말을 들던 동생은 울먹이고 있었다. 통화 내용을 곁에서 듣고 있었는지 제부의 고맙다는 말이 연신 들려왔다. 동생은 “주님의교회 잘 알아! 언니 너무 잘 했어!”라고 말했다. 그날만 해도 50년간 절에 나가시는 어머니께는 비밀로 하려했는데, 마음이 점점 어머니께 말씀드려 더 늦지 않게 교회에 가지도록 하고 싶어졌다.

새신자가 되고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은총의 길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한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를 따라하고, 성장하며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생기면 그를 따라 웃는 모습과 목소리까지 닮아간다.

아직은 믿음이 텅 빈 자루처럼 헐렁하고 비틀거릴 수도 있겠지만 한 알 한 알 말씀을 담다보면 튼실하게 설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늘 기도하기로 다짐한다.

나의 사랑 주님의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상래 성도 (5-12)